



# 한국에도 ‘딤트’ 족이 있습니까?

오재호/한국부부문화 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작**년 여름 일입니다. 별로 화사한 차림은 아니지만 첫눈에 관촬아 보이는 젊은 남녀가 이혼하겠다고 법정에 섰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너무나 태연하고 담담했습니다.

남자는 29살, 여자는 30살, 직업은 두 사람이 똑같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혼인한 지는 겨우 7개월 전. “왜 이혼하려고 하죠?”라는 질문에 거의 동시에 <그냥>이라고 대답합니다.

여자는 ‘괴식’ 웃기까지 했습니다. 내심 “옳지! 이제부터 서로 잘했다고 다툼이 시작되겠군”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수입을 물었더니 남자는 7백 만원, 여자는 9백 만 원이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저는 그만 기가 죽었습니다. 부부의 한달 수입은 아무리 못 잡아도 도합 1천 6백 만원, 실제로 저희 부부로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인 수치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그만 살겠다는 데 막을 재주가 있나요?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부가 날로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름하여 소위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딤트”(DINT-Double Income No Time)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통신시대의 부산물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그 돈을 쓰지 못하는 신세대 맞벌이 부부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혼인식을 올렸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삽니다. 탁월한 컴퓨터 활용력과 정보화 마인드로 무장은 되어 있었겠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컴퓨터 시대의 희생물입니다.

아마 우리는 “딤트”족과는 전혀 다르다고 큰소

리 칠 줄 모르지만 알고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평소 혼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미묘한 영향을 매우 적극적으로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부부는 비록 깊은 대화는 없지만, 싸우는 일도 없고, 남편과 아내가 저마다 맡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자식들도 잘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엔에서 매년 조사하는 ‘행복도 조사’에서는 한국이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들은 자신의 역할이 가족을 위하여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행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즐려고 생각해본 일도 없습니다.

현실이 이모양이니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혼인적인 삶은 나를 상대 배우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받아드려야 합니다.

비록 주고 받는 그것들 속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나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목숨바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비위에 맞지 않은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결국 불과 1~2년이 못 지나서 우리의 사랑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는 선택적인 사랑으로 변질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의 약점을 단 한 가지라도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마침내 이혼법정에서 저를 꼭 만나실 것입니다.

